

연중 제15주일(7월 14일)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13)



열두 제자들의 파견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다. 이제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줄 것이다. 우리의 사명도 회개의 선포와 악령의 추방과 병자의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 의지하며 이것들을 행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작가 제임스 티스트 | 1886-94년, 수채화, 16.5x22.2cm,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 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파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마르 6,8)

나의 신앙 생활에 불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마르 6,12)

나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소식을 전하라며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도 지팡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파견 하실까요? 이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필요하지 않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조건들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고유한 부르심으로 파견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명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여러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게 모호하고 희미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의 모습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처럼 느껴져 후회되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지 어떤 필요충분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외부 이유를 붙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결실과 성취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불리우고 파견된 자리에서 미소하나마 주님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